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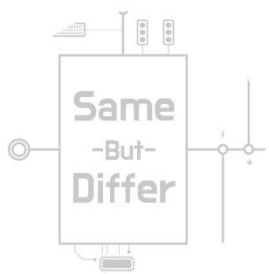
Same -But- Differ

Monthly

고선영 전기전자

02 3770 3525 | sunyoung.kou@yuantakorea.com

9



전기전자

Same But Differ (6):

변수가 된 환율, 견고할 자 누구인가?

1. 전기전자 현황 점검

주가 및 수익률 - 산발적 반등, 뚜렷한 방향 8월 이후 전기전자 섹터는 지난 2개월간의 조정에서 벗어나 반등 국면에 진입. 다만 반등의 강도는 업종 전반보다 특정 이벤트에 연관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결론적으로 8월 이후 반등은 6~7월 조정이 노이즈성 되돌림이었다는 판단을 재확인시켜줬으며 반등이 아직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반등 여지가 남아있다는 판단

수급 - 중심이 된 기관 외국인은 매도 강도가 완화되었으나 매수 주체로서의 존재감은 약해졌고 기관은 매수 규모를 줄이면서도 완전한 매도 전환보다 선별적 대응을 유지. 사실상 유일한 매수 주체로 남은 기관 쪽으로 수급의 무게중심이 쏠리는 국면

2. 변수가 된 환율 - 하반기 이익에 쏠리는 시선

환율 민감도 재해석 - 절대금액과 실질 영향은 다른 이야기 2H25 이후 섹터에 우호적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8월 중순 1,400원대를 하회하기 시작하며 하반기 실적 및 가이던스의 핵심 변수로 부상. 다만 절대금액이 아닌 영업이익 대비 %로 환산해보면 표면적인 환율 민감도 순위와 실질적인 영향 순위가 상당 부분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 일례로 삼성전기의 경우 절대금액 기준 민감도는 상위권이나 OP 대비 %는 낮은 반면(0.75%) 대덕전자, 해성디에스는 절대금액은 작지만 OP 대비 %는 오히려 높음(각각 1.87%, 1.35%)

방어력 - 환헤지 구조와 Q 및 P 변화가 관건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티엘비는 실질적인 환율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예정된 물량 확대 및 믹스 개선이 관련 여파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국내 전기전자 투자전략 - 환율과 업황의 결합 시나리오가 만든 선택

환율 민감도 순위만으로 종목을 평가하기보다 환율과 업황(평가 및 물량)이 결합된 시나리오 하에서의 포지셔닝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실전적인 투자 프레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 환율 영향이 낮으면서도 하반기 물량 확대와 믹스 개선이 동반되는 종목에 주목할 시점

Top picks: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티엘비



고선영 전기전자

sunyoung.kou@yuantakorea.com

종목	투자 의견	목표주가 (원)
삼성전기	매수 (M)	2,300,000 (M)
대덕전자	매수 (M)	180,000 (M)
해성디에스	매수 (M)	75,000 (M)
이수페타시스	매수 (M)	180,000 (M)
LG 이노텍	매수 (M)	1,400,000 (M)
티엘비	매수 (M)	90,000 (M)
Broadcom	Not Rated (M)	- (M)
Nvidia	Not Rated (M)	- (M)

1. 전기전자 현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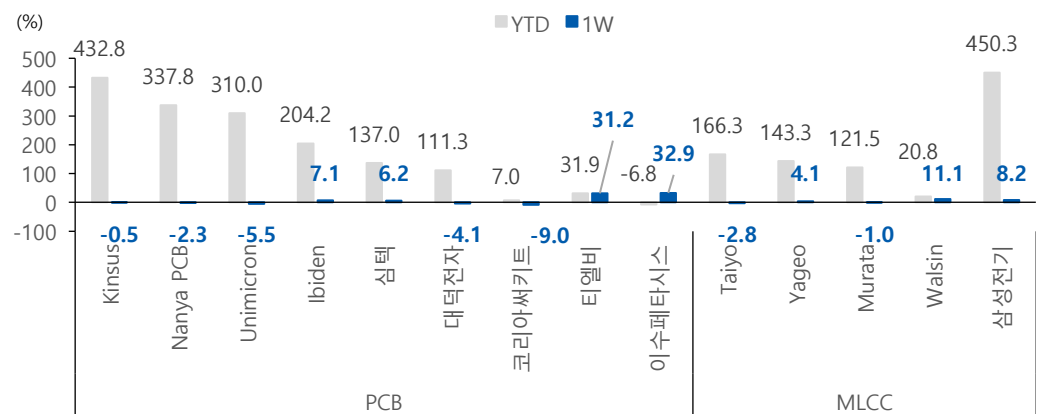
주가 및 수익률 – 산발적 반등, 뚜렷한 방향

8월 이후 전기전자 섹터는 지난 2개월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반전을 확인한 구간이었다. 그러나 반등의 강도는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기 보다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섹터 내 의미 있는 수급 주체가 사실상 기관 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종목별로 개별 이벤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이벤트로는 우선 Broadcom 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되며 AI 인프라 투자와 향후 수혜 강도에 대한 확신이 재차 뒷받침되었고, NVIDIA 베라 루빈의 본격적인 인도가 시작되며 관련 수요와 생산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SOCAMM 관련 테마가 재차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1W 기준 국내 종목들이 해외 Peer 대비 강한 반등 강도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이벤트들과 상관관계가 높은 티엘비, 이수페타시스 등 관련 종목들의 수익률이 국내 주요 지수 대비 뚜렷하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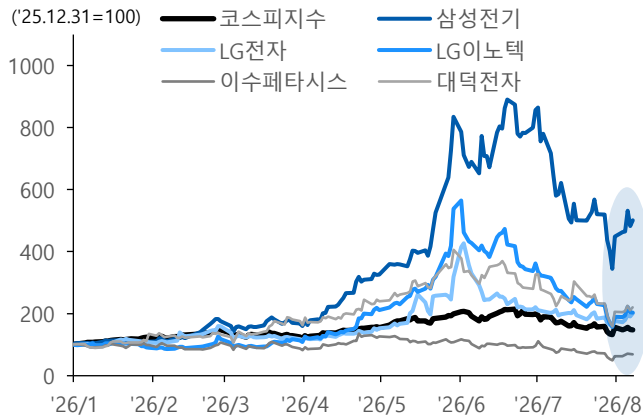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최근 8월 이후의 반등은 지난 2개월간의 조정이 노이즈성 되돌림이었다는 판단을 재확인시켜준 구간이었으며 반등의 여파가 아직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판단이다.

[그림 1] 글로벌 및 국내 전기전자 종목들 YTD 및 1W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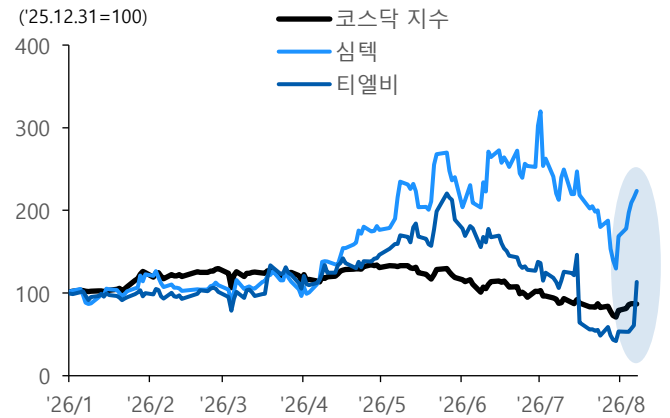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2] 주요 전기전자 종목 YTD 주가 추이 (vs 코스피)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3] 주요 전기전자 종목 YTD 주가 추이 (vs 코스닥)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4] 국내 전기전자 주요 종목별 1주전 대비 수익률 비교

26년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심텍	티엘비	코리아씨키트	두산	기가비스
1/2	4.3	-1.8	-0.2	3.3	2.1	19.1	1.3	-0.5	-3.1	2.3
1/9	-1.5	-2.2	-2.5	-12.4	-15.2	-2.3	-10.0	-3.6	-2.1	5.2
1/16	8.8	9.4	10.4	23.3	19.7	33.8	10.4	2.6	10.8	37.9
1/23	-6.0	-3.2	7.3	-2.5	-2.3	1.9	-0.8	-2.7	14.3	6.3
1/30	2.6	-11.6	-6.2	25.4	20.0	11.2	-2.0	5.3	-10.0	10.2
2/6	1.8	-5.1	0.1	-7.0	-12.6	-25.0	-2.4	-6.5	-2.7	8.5
2/13	9.0	4.3	18.2	-2.4	-4.4	10.2	-11.4	-0.5	13.8	-1.9
2/20	21.8	5.6	5.5	1.6	1.4	2.9	-1.1	11.4	11.2	2.8
2/27	19.0	24.6	17.9	7.2	5.3	-2.0	27.0	-1.9	22.1	22.0
3/6	-9.8	-15.4	-19.0	6.6	5.6	-6.3	-10.2	0.0	-17.8	-1.0
3/13	-1.0	-7.4	-4.2	-5.1	-9.0	-6.9	-6.5	-5.1	4.7	1.4
3/20	16.0	18.4	4.2	30.8	20.4	25.7	18.4	35.8	7.9	8.9
3/27	-6.6	8.3	-5.0	3.1	-10.1	30.0	-12.9	-6.4	1.4	-0.9
4/3	5.1	1.3	-3.3	-4.9	-11.8	-19.1	-7.2	-10.4	-11.0	6.7
4/10	23.9	17.1	9.3	10.7	37.4	17.8	12.0	13.7	19.6	2.8
4/17	20.2	3.7	4.9	4.9	11.9	11.5	4.7	9.4	3.8	1.8
4/24	16.1	37.6	2.7	22.2	16.7	9.6	27.5	1.6	15.9	15.2
4/30	7.5	14.6	8.5	14.1	2.7	1.6	0.1	11.5	10.7	13.4
5/8	9.9	8.9	9.4	9.2	33.1	10.3	-6.1	16.1	8.7	-1.3
5/15	10.5	17.3	56.1	10.2	-13.4	-11.0	-9.3	-0.9	-7.0	16.8
5/22	32.7	18.0	-1.5	11.4	31.4	10.7	-1.5	18.0	-1.3	0.0
5/29	58.7	68.8	23.6	26.2	-10.4	18.5	2.5	0.1	23.8	18.0
6/5	-17.4	-20.4	3.4	-20.2	-12.8	-1.3	-6.4	-5.4	-11.8	1.8
6/12	-2.5	-10.7	-25.6	8.4	26.3	14.2	1.2	-6.1	9.0	1.4
6/19	32.4	10.5	-6.2	-5.4	-4.5	-11.4	-6.0	-13.5	-14.0	-4.8
6/26	-12.2	-18.7	-7.4	-14.8	0.4	-23.4	-6.3	-11.7	-11.6	19.9
7/3	-0.2	-6.3	-2.5	-2.7	3.5	-12.1	2.1	-2.9	-0.6	0.2
7/10	-20.4	-14.9	-4.5	-6.7	-5.0	-8.0	-5.7	1.1	-3.6	-1.5
7/16	-14.5	-9.9	0.6	23.2	-8.9	0.3	0.2	10.9	-0.1	7.5
7/24	3.8	-6.4	-5.5	-20.7	-17.6	-18.8	-5.4	-24.5	-0.9	-30.5
7/31	-13.9	-17.8	-4.2	-11.6	-6.3	-18.7	-14.4	-8.7	-1.8	-8.6
8/7	11.9	7.4	14.1	7.2	32.7	19.9	10.5	6.4	1.8	6.6
8/14	21.9	18.5	16.2	14.7	-1.2	13.3	16.2	11.7	7.1	8.9
8/21	-15.5	-15.9	-9.5	-12.4	-8.3	-13.5	3.9	-1.0	-15.5	-12.3
8/28	8.0	11.1	3.6	3.2	23.2	10.1	13.6	27.3	14.8	4.3
9/4	-1.4	-8.0	0.0	-7.5	-4.0	-15.1	-1.5	-6.2	-7.8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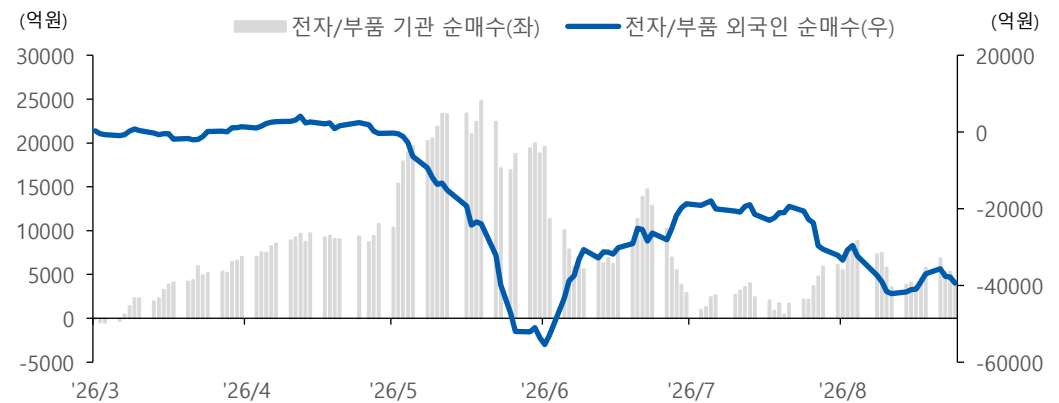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기관과 외국인 수급 - 중심이 된 기관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관망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전과 달리 기관이 사실상 유일한 매수 주체로 남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외국인의 경우 여전히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형주에 한해 조금이라도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외국인의 존재감이 점차 약해지면서 주가 측면에서의 상승 강도 또한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종목별 산발적인 반등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5~6월 대비 매도 강도 자체가 눈에 띄게 완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의 경우 7월 고점 이후 매수 규모를 점차 줄이며 관망 기조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방향성 자체를 완전한 매도로 전환하기 보다 기존 매수 기조를 유지한 채 섹터 내 종목별로 관련 이벤트에 따라 선별적인 대응을 이어가는 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지난달과 큰 방향성의 차이가 확인되는 국면은 아니다. 다만, 외국인의 존재감이 한층 약해지고 기관이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급 주체로 남았다는 점에서 기관으로의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는 판단은 가능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림 5] 전자/부품 업종 내 기관 및 외국인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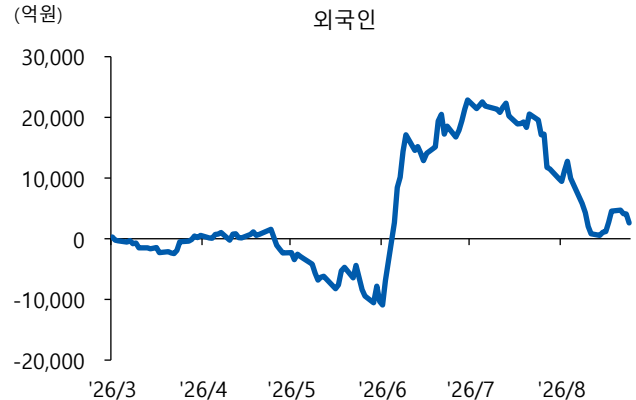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6] 삼성전기 6M 순매수 -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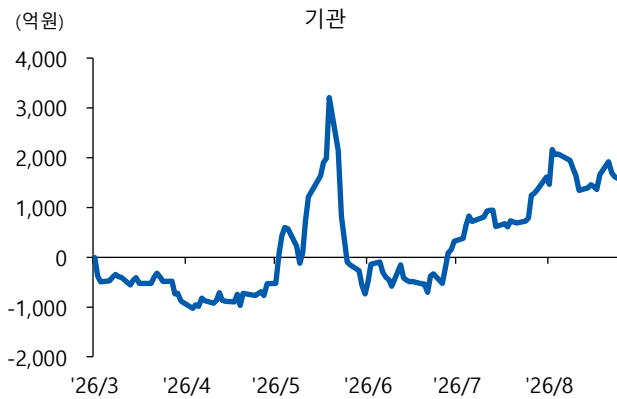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7] 삼성전기 6M 순매수 - 외국인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8] LG 전자 6M 순매수 -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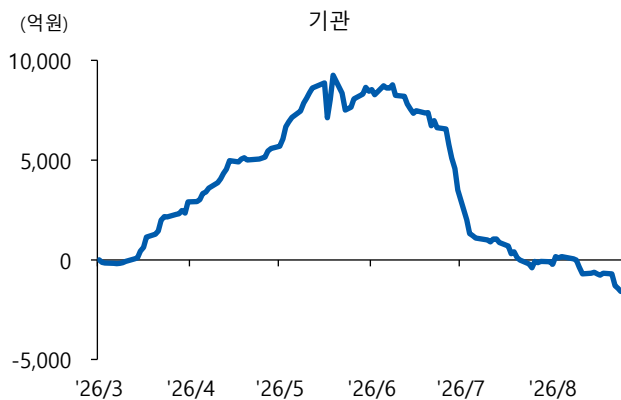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9] LG 전자 6M 순매수 -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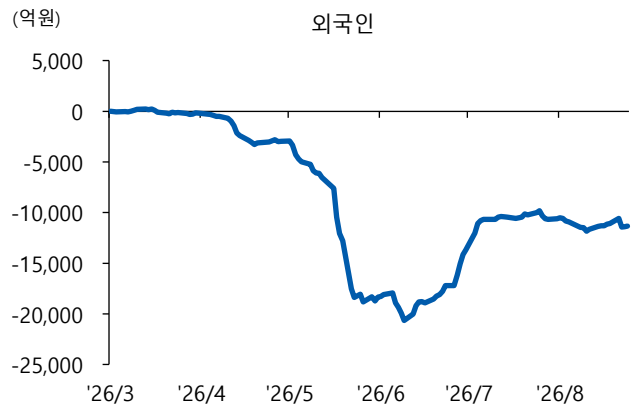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10] LG 이노텍 6M 순매수 -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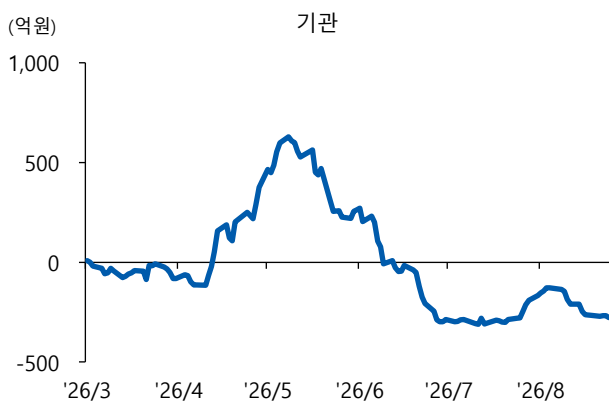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11] LG 이노텍 6M 순매수 -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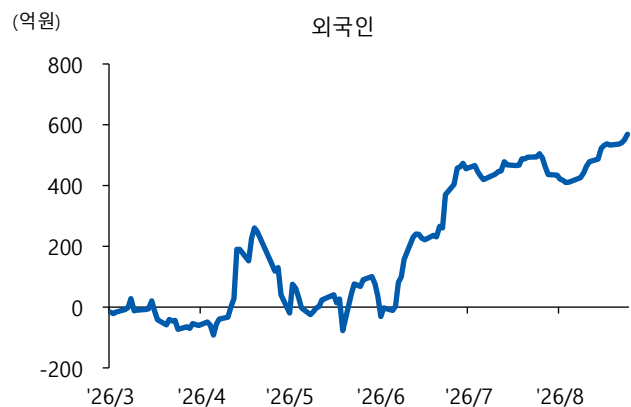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12] 해성디에스 6M 순매수 -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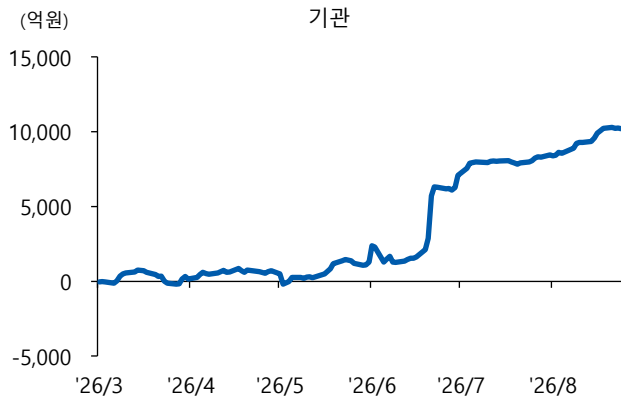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13] 해성디에스 6M 순매수 -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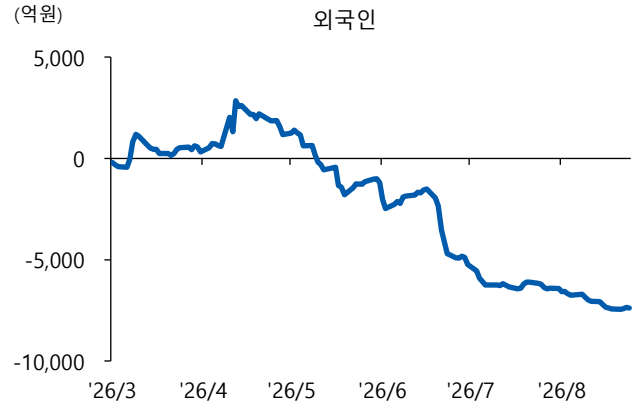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14] 이수페타시스 6M 순매수 - 기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15] 이수페타시스 6M 순매수 -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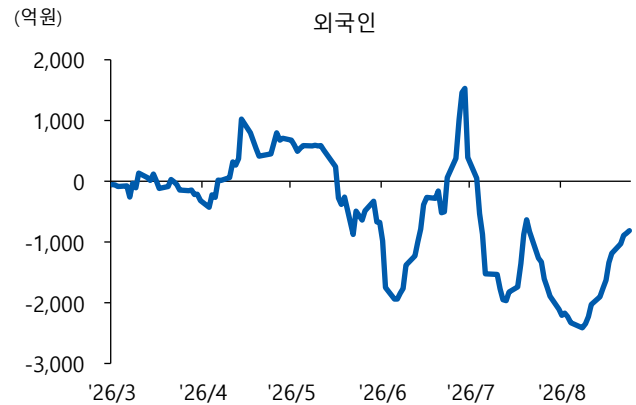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16] 대덕전자 6M 순매수 -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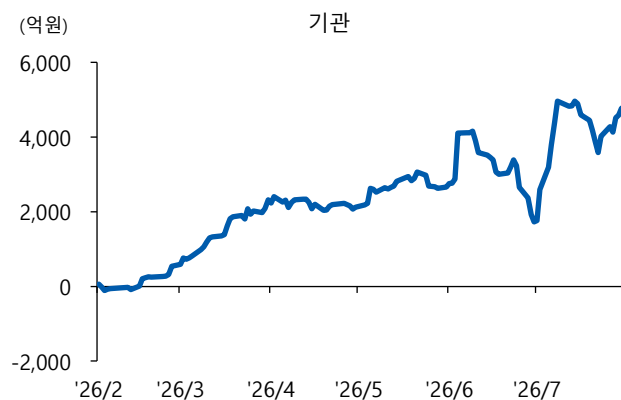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17] 대덕전자 6M 순매수 -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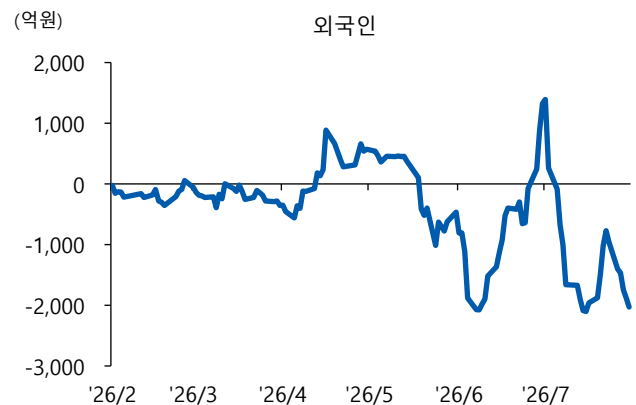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18] 티엘비 6M 순매수 - 기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19] 티엘비 6M 순매수 - 외국인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기판 및 MLCC 모두 할인 국면

지난 2개월 간의 조정을 거치며 기판과 MLCC 모두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가 낮아진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실적 추정치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상향되고 있음에도 주가가 큰 폭의 낙폭을 경험했고 이후 종목별로 선별적인 반등 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멀티플 자체가 업황 대비 저평가되고 있다는 주장을 여전히 신빙성 있게 만든다는 판단이다. 기판의 경우 여전히 국내 업체들이 해외 대비 뚜렷한 할인폭을 유지하고 있다. '26년 PER 기준 국내 Peer 평균은 21.1배로 해외 평균(62.6배) 대비 크게 낮으며 '27년 기준 국내 14.1배, 해외 31.2배로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MLCC 와도 크게 무관하지 않다.

[표 1] 기판 - 국내외 주요 기업들 밸류에이션 추정치

	기업명	Unimicron	Ibiden	Nanya PCB	Kinsus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씨키트	티엘비
	Ticker	3037.TT	4062.JP	8046.TT	3189.TT	A007660	A353200	A222800	A007810	A356860
	시가총액	46,721	37,164	21,546	13,639	8,156	4,917	4,477	1,223	881
25	PER	42.2	106.3	407.8	918.2	47.0	112.2	-	27.2	42.3
	PBR	2.3	9.9	1.9	1.5	12.1	5.7	9.4	3.3	6.2
	ROE	5.5	10.5	0.4	0.2	33.5	5.1	-6.7	7.5	15.4
	EV/EBITDA	10.0	44.1	14.9	7.9	36.3	16.8	22.9	16.4	18.9
26F	PER	42.4	72.0	62.0	77.4	29.9	22.3	22.9	13.4	17.8
	PBR	10.8	9.2	12.4	9.4	8.0	4.7	5.9	2.7	3.7
	ROE	27.5	13.9	21.6	13.6	30.7	23.1	28.8	11.0	25.5
	EV/EBITDA	27.6	27.8	33.2	29.0	20.8	12.6	14.2	8.2	13.6
27F	PER	22.7	48.8	23.8	31.6	19.7	15.7	13.5	9.2	12.7
	PBR	8.2	7.8	9.3	7.5	5.8	3.7	4.1	2.2	2.9
	ROE	40.9	18.7	45.5	25.4	34.0	26.2	35.6	14.1	25.6
	EV/EBITDA	14.1	19.8	14.9	18.3	13.7	8.7	9.1	5.9	9.3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단위는 백만달러, 배, %, 주: 9/4일 기준

해외(26F PER 기준): 평균 63.5배, 국내: 평균 21.3배, 해외(27F PER 기준): 평균 31.7배, 국내: 평균 14.2배

[표 2] MLCC - 국내외 주요 기업들 밸류에이션 추정치

	기업명	Murata	Taiyo Yuden	TDK	Yageo	삼성전기
	Ticker	6981.JP	6976.JP	6762.JP	2327.TT	A009150
	시가총액	90,354	8,300	36,176	36,568	104,646
25	PER	59.9	84.0	27.9	49.6	159.6
	PBR	5.0	3.6	2.8	4.7	11.3
	ROE	8.4	4.6	10.5	14.1	7.6
	EV/EBITDA	30.3	19.3	11.4	30.9	11.3
26F	PER	38.3	41.4	22.1	29.7	70.5
	PBR	4.6	3.3	2.3	5.8	9.6
	ROE	12.4	8.2	10.9	21.4	15.2
	EV/EBITDA	21.5	14.9	9.3	20.0	35.0
27F	PER	27.2	23.3	18.9	18.3	36.9
	PBR	4.1	3.0	2.2	3.1	7.5
	ROE	16.8	14.1	12.0	30.1	23.9
	EV/EBITDA	15.9	10.7	8.2	13.0	20.8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단위는 백만달러, 배, %, 주: 9/4일 기준

해외(26F PBR 기준): 평균 4.0배, 해외(26F PER 기준): 평균 32.9배, 해외(27F PBR 기준): 평균 3.1배, 해외(27F PER 기준): 평균 21.9배

2. 변수가 된 환율 - 하반기 이익에 쏠리는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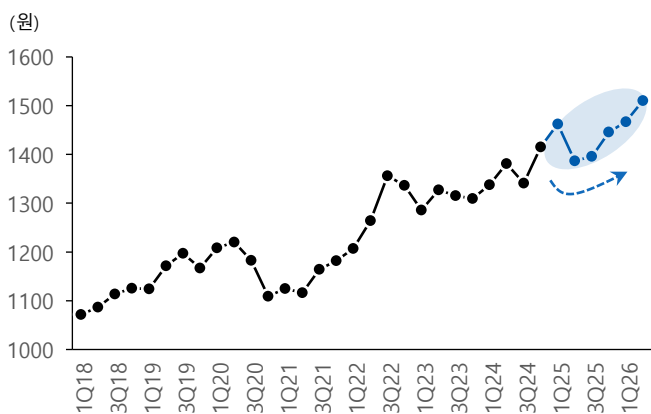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환율, 우려로 전환되기 시작

국내 원/달러 환율 여건은 전기전자 호황이 시작되었던 2H25 이후 섹터 입장에서는 내내 우호적이었다. 높은 수출 의존도는 물론 제품 판매와 원자재 구입에 이르기까지 달러 결제가 기본 바탕이 되는 전기전자 섹터의 특성을 감안, 환율의 경우 그동안 전기전자에서 확인된 우호적인 실적과 성장세를 뒷받침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이익 및 가이드نس 변화 측면에서 핵심 변수로 자리하기 시작했다.

사실 원/달러 환율 하락 자체만 두고 봐도 수출 중심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측면에서는 우호적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6~7월이 섹터 측면에서 ① IT 업황에 대한 우려, ② 빅테크들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CapEx 확대 지속 여부, ③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맞물리며 극심한 변동성 국면에 진입했던 점을 감안해본다면, 현재 환율이라는 매크로 악재에 이전 대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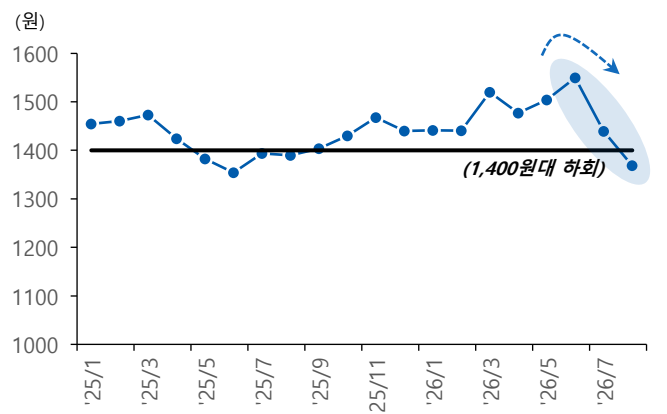
8월 국내외 2Q26 실적시즌을 지나며 흔들리지 않은 업황과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사실상 변동성 장세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주가 측면에서 회복이 진행중이기에 하반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컨센서스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원/달러 환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시점이다.

[그림 20] 원/달러 환율(분기 기준) - 2H25 부터 섹터 내 우호적이었던 환율 여건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1] 원/달러 환율(월 기준) - 26.8월 중순 이후 원화 강세 지속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절대적인 환율 민감도와 실질적인 영향은 다른 이야기

하반기 특히, 3Q26 컨센서스 변화의 핵심 변수에는 환율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기업별 환율 민감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물량 및 믹스 고정이라는 기본 전제 속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절대금액 자체가 높은 대형주들의 환율 민감도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구분을 위해 환율 10원 변동 시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영업이익 대비 %로 환산해볼 필요가 있다(분기 영업이익 대비 % 산출 = 10원당 분기 영향액/해당 분기 영업이익 추정치*100). 실제로 전기전자 커버리지 내 종목별로 절대금액 기준과 OP 대비 %(3Q26E) 기준을 더붙어 산출하게 되면 절대금액 기준 표면적인 환율 민감도 순위와 실제 환율 변화에 따른 컨센서스 변동 폭 순위가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의 경우 절대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10원 변동 시 분기 당 45억, 30억 정도로 산출되어 1~2위권을 위치하고 있으나 3Q26(E) OP 대비 %를 본다면 각각 0.75%, 0.93% 수준에 불과하다. 반대로 대덕전자와 해성디에스의 경우 절대금액으로는 각각 분기 당 15억, 4.5억 정도이나 OP 대비 %를 산출해서 본다면 1.87%, 1.35%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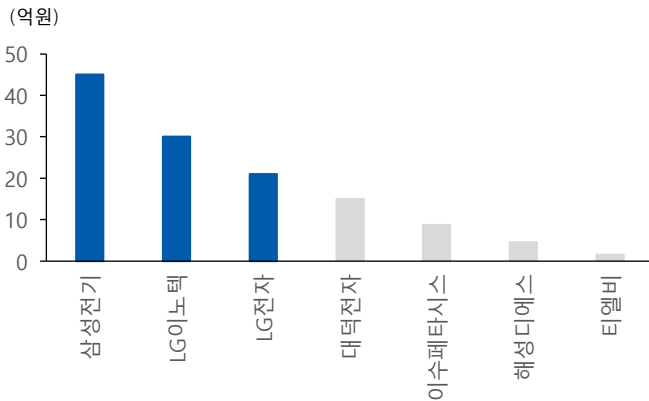
여기에 개별 종목별 가이드نس 환율 가정치, 헤지 구조, 수출 비중과 제품 및 원재료 결제 통화 구성까지 더해보면 단순 순위 비교보다 더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더불어 환율 민감도 자체가 물량 및 믹스를 고정하는 기본 전제가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 기업별로 하반기 중 Q와 P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되어 있다면 예정된 환율 하락에도 실적 하락 및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은 제한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 유안타 전기전자 커버리지 기업 - 환율 민감도, 헷지 구조 및 가이드نس 환율 조정 가능성

	10원당 분기 영업이익 영향 (절대금액, 억원)	10원당 분기 영업이익 영향 (OP 대비 %)	3Q26(E) 환율 조정 가능성	헤지 구조
대덕전자	15	1.87	높음	환헤지 X [달러 최소화]
해성디에스	4.5	1.35	높음	환헤지 X
이수페타시스	8.7	0.93	낮음	환헤지 △ [낮은 임팩트]
티엘비	1.5	0.93	낮음	환헤지 X
LG 이노텍	30	0.93	높음	환헤지 X
삼성전기	45	0.75	낮음	환헤지 ○ [적극적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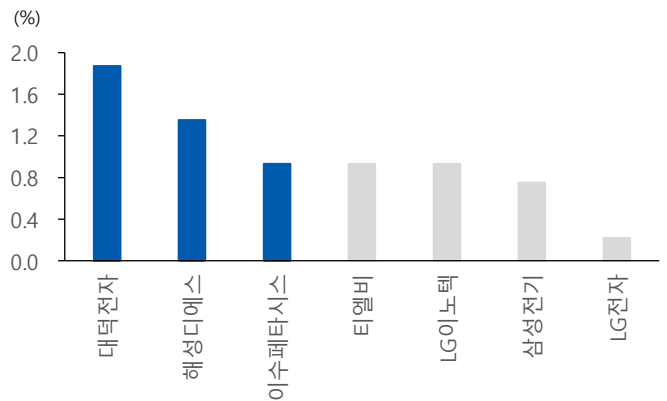
자료: 각 기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가이드نس 환율 조정 가능성 구분 - 높음(가정: 1,400 원대) & 낮음(가정: 1,300 원대)

[그림 22] 환율 민감도_원/달러 10 원 상승 시 영업이익 영향 [절대금액/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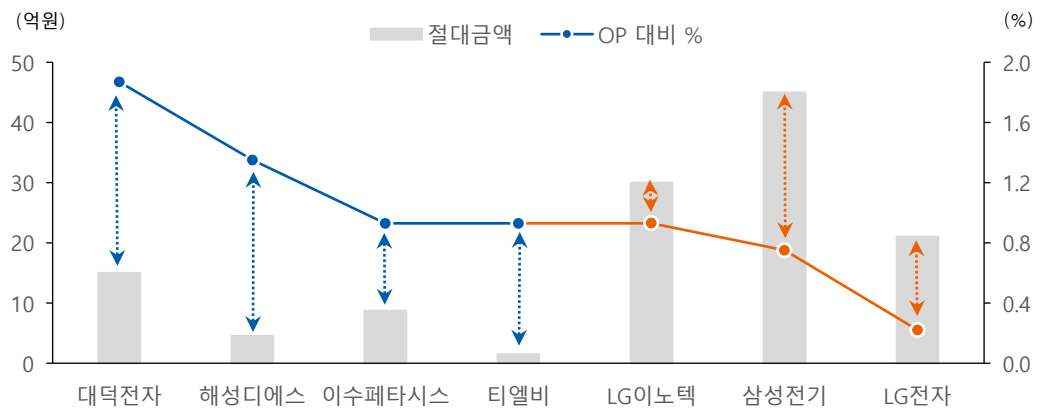
자료: 각 기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3] 환율 민감도_원/달러 10 원 상승 시 영업이익 영향 [3Q26(E) OP 대비 %]



자료: 각 기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4] 기업별 환율 민감도_원/달러 10 원 상승 시 영업이익 영향



자료: 각 기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분기 영업이익 대비 % 산출 = 10 원당 분기 영향액/해당 분기 영업이익 추정치*100

당사 전기전자 커버리지 내 종목별 환율 영향 점검

대덕전자: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수출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결제 통화로서 달러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환헤지 없이 달러 보유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상황을 대응하고 있다. 현재 3Q26 실적 가이드스에 반영된 환율은 분기 평균 1,400원대 초반을 가정하고 있으며 환율 10원 변동 시 분기 영업이익 영향은 대략 15억원 내외이다. 우선 분기 영업이익 대비 % 기준으로는 커버리지 내 환율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해당 수치 자체가 물량과 믹스 고정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3Q26 예정된 FC-BGA 대면적 기판 출시 및 MLB 캐파 확장과 맞물리는 수요 증가 등이 평가 인상과 동반된다면 실제 손익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 부분 상쇄될 여지가 존재한다.

해성디에스: 전체 매출 구조의 대부분이 수출로 달러 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재 3Q26 실적 가이드스에 반영된 환율은 분기 평균 1,400원대 초반을 가정하고 있으며 환율 10원 변동 시 분기 영업이익의 영향은 대략 4~5억원 수준이다. 환율 민감도 자체는 상위권으로 결코 환율 영향이 적다고 볼 수는 없으나 3Q26 주요 IDM 대상 DDR5 물량 확대가 본격화되는 국면임과 동시에 캐파 확장에도 단기간 풀캐파 수준에 빠르게 도달한 견조한 리드프레임 수요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 국면이다. Q 측면에서의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환율 여파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LG 이노텍: 전체 매출의 85%가량을 차지하는 광학솔루션 부문의 경우 대부분 수출로 구성되어 있어 달러 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15%인 패키지 및 모빌리티솔루션 부문의 경우 달러, 유로, 원화 등이 결제 통화에 혼재되어 있다. 현재 3Q26 실적 가이드스에 반영된 환율은 분기 평균 1,400원대 후반을 가정하고 있으며 환율 10원 변동 시 분기 영업이익의 영향은 대략 30억원 수준이다. 가이드스에 가정된 환율 수준이 높아 향후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해둘 필요가 존재한다. 다만, 9월의 경우 동사 핵심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제품 출시 이후 초도물량 등 관련 수요 상황에 따라 물량 및 믹스 개선에 따른 환율 영향 상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기/이수페타시스/티엘비: 세 회사 모두 높은 수출 비중을 바탕으로 매출 및 원재료 결제통화가 달러로 일치한다. 현재 3Q26 실적 가이드스에 반영된 환율 또한 분기 평균 1,300원대 후반을 가정하고 있는 만큼 애초에 보수적인 가정 하에 실적 추정을 하고 있음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업별로 삼성전기의 경우 이미 체결한 10건의 MLCC LTA와 더불어 추가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5월 공시된 실리콘 커패시터 공급 계약(1.6조원 '27~28년)과 더불어 '27년 공급을 목표로 체결된 3건의 MLCC 공급 계약(1) 6월 4,540억원, (2) 7월 2,951억원, (3) 9월 1조 722억원)을 감안할 경우에도 환율 가정의 전제가 되는 물량과 믹스 고정이라는 전제를 상회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수페타시스와 티엘비도 물량 확대 시점과 맞물리는 견고한 MLB 및 SOCAMM 수요 확대라는 물량과 믹스 확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 종목 모두 현재 환율 영향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물량 확대와 믹스 개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려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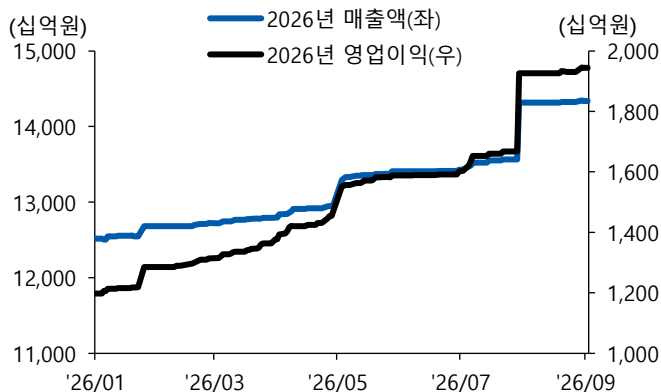
3. 국내 전기전자 업종 투자전략 – 환율과 업황의 결합 시나리오가 만든 선택

민감도는 리스크이자 기회의 크기, 방어력 또한 함께 볼 필요

하반기 전기전자 업종 내 실적 컨센서스 변화의 핵심 변수로 환율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기업별 환율 민감도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 환율 영향을 %로 산출하는 방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더불어 환율 민감도 자체가 물량 및 믹스를 고정하는 기본 전제가 수반된다는 만큼 기업별로 하반기 중 Q와 P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되어 있다면 예정된 환율 하락에도 실적 하락 및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은 제한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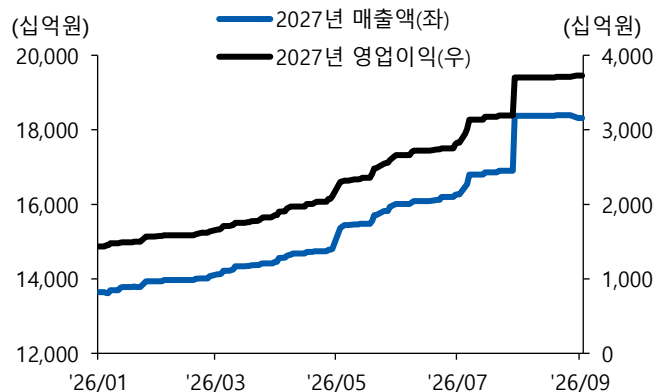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하반기 실적을 바라볼 때 환율 민감도 순위 자체만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환율과 업황(판가와 물량) 결합 시나리오 하에서의 포지셔닝이 보다 실전적인 프레임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티엘비를 Top-picks 으로 제시한다. 언급된 세 종목 모두 (1) 환율 영향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2) 하반기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물량 확대와 믹스 개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려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환 관련 우려가 높은 상황 속에서 좋은 선택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림 25] 삼성전자 '26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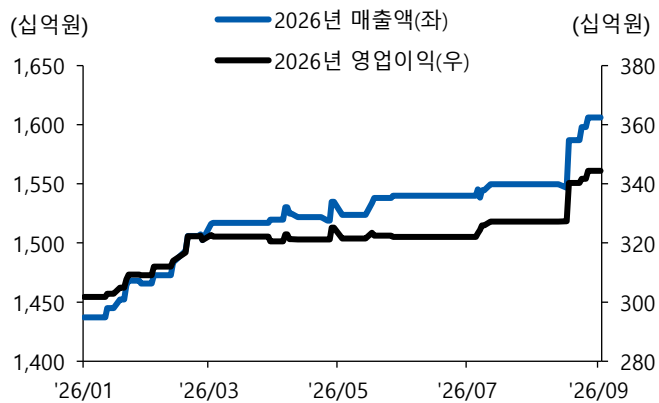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26] 삼성전자 '27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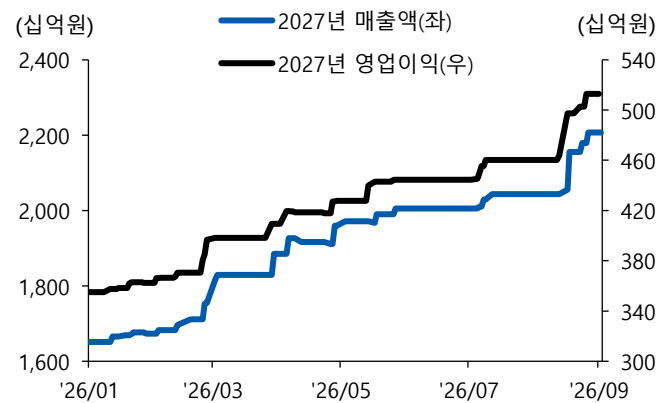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27] 이수페타시스 '26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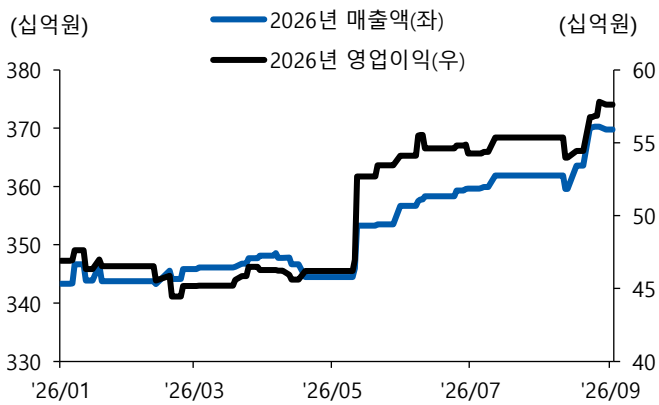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28] 이수페타시스 '27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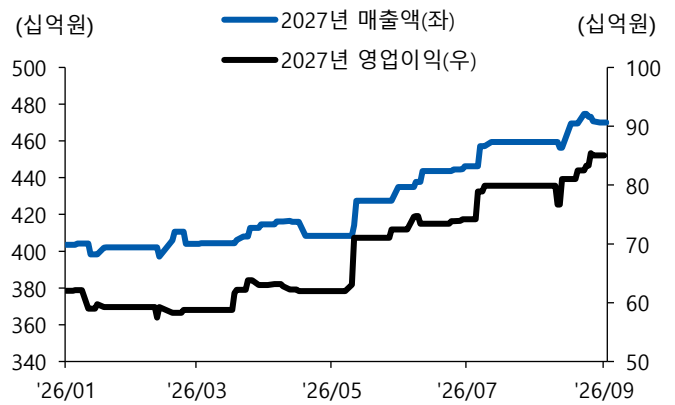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29] 티엘비 '26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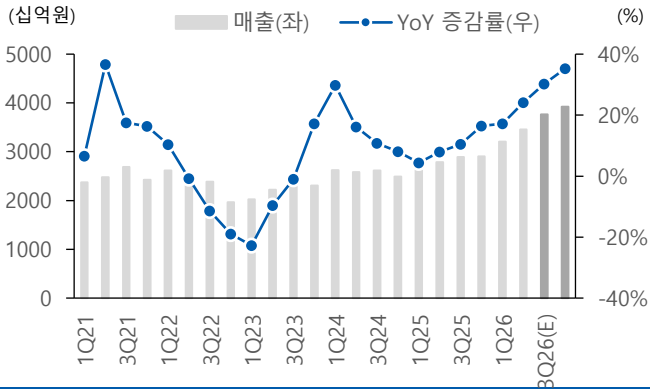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30] 티엘비 '27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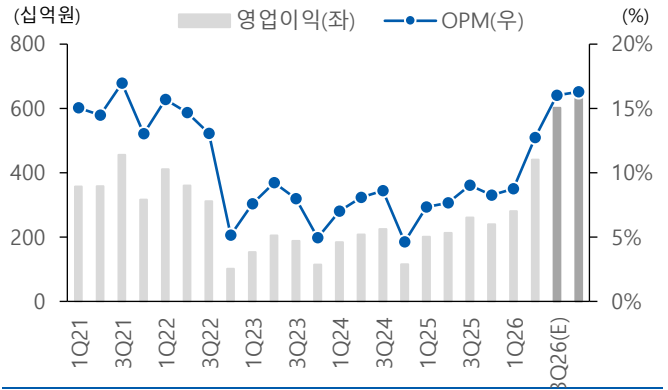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4 일 기준

[그림 31] 삼성전기 분기별 매출 및 전년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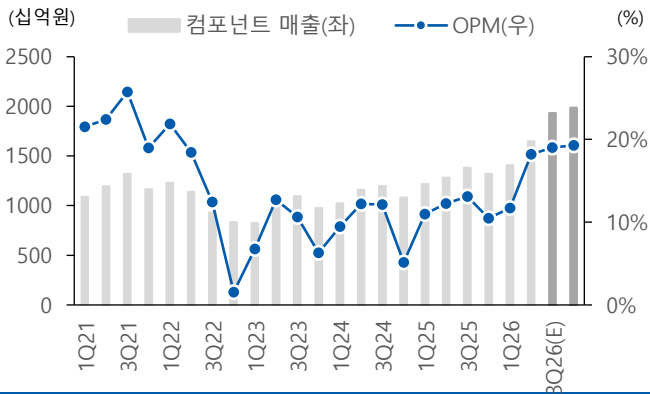
자료: 삼성전기,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2] 삼성전기 분기별 영업이익 및 O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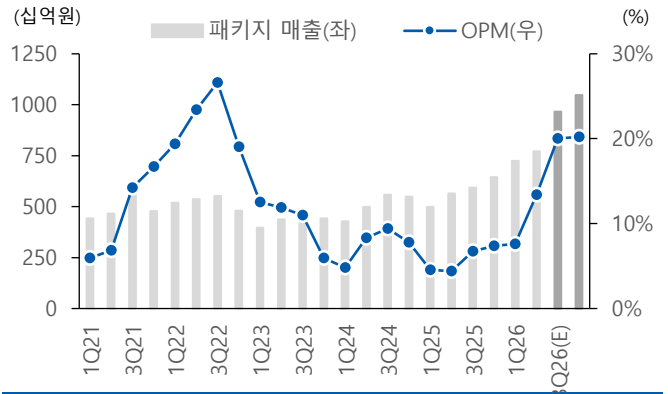
자료: 삼성전기,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3] 삼성전기 분기별 컴포넌트 매출 및 O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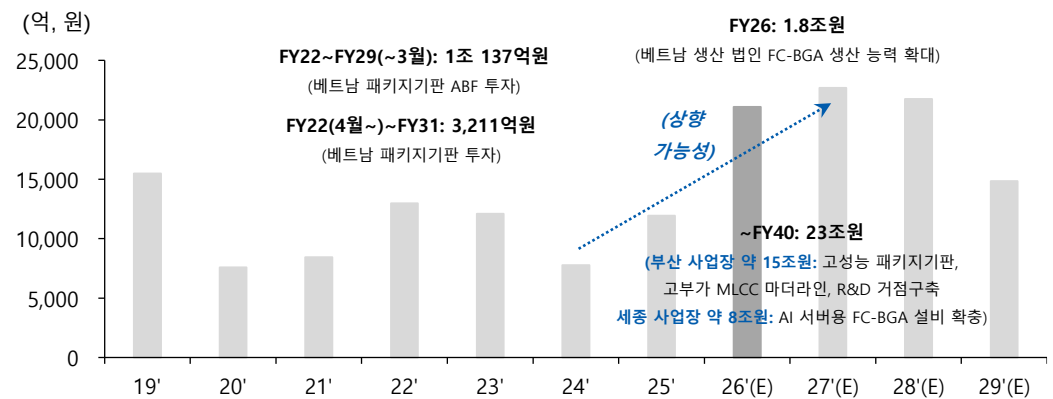
자료: 삼성전기,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4] 삼성전기 분기별 패키지 매출 및 OPM



자료: 삼성전기,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5] 삼성전기 연간 CapEx 추이 및 연도별 기관 투자 세부사항 및 금액



자료: Bloomberg, 삼성전기,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4] 삼성전기 적정 주가 산출표

구분	내용	비고
EPS(원)	34,637	'27년 예상 EPS
목표 PER(배)	66.1	이전 Target Multiple 에 부과한 15% 프리미엄 제거
목표 주가(원)	2,300,000	EPS*Target PER
현재 주가(원)	1,454,000	
상승 여력(%)	58%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7 증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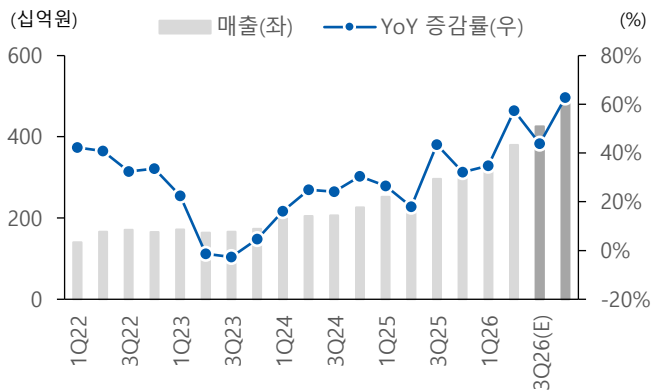
[표 5] 삼성전기 분기 실적 추이 전망

(단위: 십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매출액	2,738.7	2,784.6	2,889.0	2,902.1	3,209.1	3,457.2	3,762.5	3,925.6	11,314.4	14,354.3	18,379.5
Y/Y 증감률(%)	4.4%	7.9%	10.5%	16.4%	17.2%	24.2%	30.2%	35.3%	9.8%	26.9%	28.0%
Q/Q 증감률(%)	9.9%	1.7%	3.7%	0.5%	10.6%	7.7%	8.8%	4.3%	-	-	-
컴포넌트솔루션	1,216.2	1,280.7	1,381.2	1,320.3	1,408.5	1,649.4	1,933.9	1,988.3	5,198.4	6,980.1	10,281.6
Y/Y 증감률(%)	18.9%	10.4%	15.4%	22.0%	15.8%	28.8%	40.0%	50.6%	16.5%	34.3%	47.3%
Q/Q 증감률(%)	12.4%	5.3%	7.8%	-4.4%	6.7%	17.1%	17.2%	2.8%	-	-	-
광학통신솔루션	1,023.0	939.3	914.6	937.2	1,075.6	1,036.2	863.1	890.5	3,814.1	3,865.4	3,674.2
Y/Y 증감률(%)	-12.8%	2.0%	6.3%	8.8%	5.1%	10.3%	-5.6%	-5.0%	0.0%	1.3%	-4.9%
Q/Q 증감률(%)	18.8%	-8.2%	-2.6%	2.5%	14.8%	-3.7%	-16.7%	3.2%	-	-	-
패키지솔루션	499.4	564.6	593.2	644.6	725.0	771.6	965.4	1,046.8	2,301.8	3,508.8	4,423.7
Y/Y 증감률(%)	16.7%	13.1%	6.3%	17.3%	45.2%	36.7%	62.7%	62.4%	13.1%	52.4%	26.1%
Q/Q 증감률(%)	-9.1%	13.1%	5.1%	8.7%	12.5%	6.4%	25.1%	8.4%	-	-	-
매출비중(%)											
컴포넌트솔루션	44.4%	46.0%	47.8%	45.5%	43.9%	47.7%	51.4%	50.6%	45.9%	48.6%	55.9%
광학통신솔루션	37.4%	33.7%	31.7%	32.3%	33.5%	30.0%	22.9%	22.7%	33.7%	26.9%	20.0%
패키지솔루션	18.2%	20.3%	20.5%	22.2%	22.6%	22.3%	25.7%	26.7%	20.3%	24.4%	24.1%
영업이익	200.6	213.0	260.3	239.5	280.6	440.4	602.0	638.8	913.3	1,961.8	3,673.2
Y/Y 증감률(%)	9.2%	2.4%	15.7%	108.2%	40.0%	106.8%	131.3%	166.7%	24.3%	114.8%	87.2%
Q/Q 증감률(%)	74.3%	6.2%	22.2%	-8.0%	17.2%	56.9%	36.7%	6.1%	-	-	-
컴포넌트솔루션	133.5	156.7	180.7	138.5	164.9	300.2	367.4	383.7	609.4	1,216.3	2,622.5
광학통신솔루션	44.3	31.5	39.6	53.3	60.4	36.7	41.4	43.6	168.7	182.2	151.4
패키지솔루션	22.7	24.8	40.0	47.7	55.3	103.5	193.1	211.5	135.2	563.3	899.3
영업이익률(%)	7.3%	7.6%	9.0%	8.3%	8.7%	12.7%	16.0%	16.3%	8.1%	13.7%	20.0%
컴포넌트솔루션	11.0%	12.2%	13.1%	10.5%	11.7%	18.2%	19.0%	19.3%	11.7%	17.4%	25.5%
광학통신솔루션	4.3%	3.4%	4.3%	5.7%	5.6%	3.5%	4.8%	4.9%	4.4%	4.7%	4.1%
패키지솔루션	4.6%	4.4%	6.7%	7.4%	7.6%	13.4%	20.0%	20.2%	5.9%	16.1%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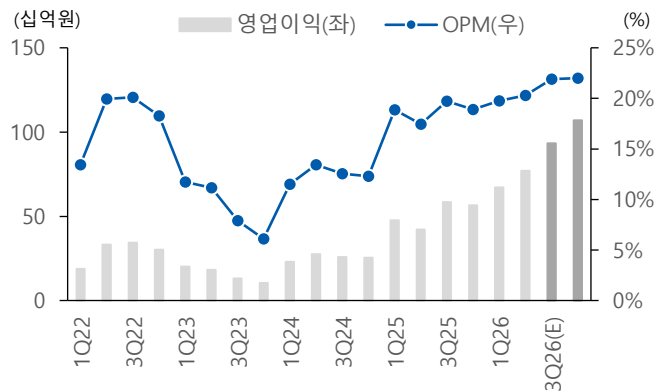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6] 이수페타시스 연결 기준 매출 및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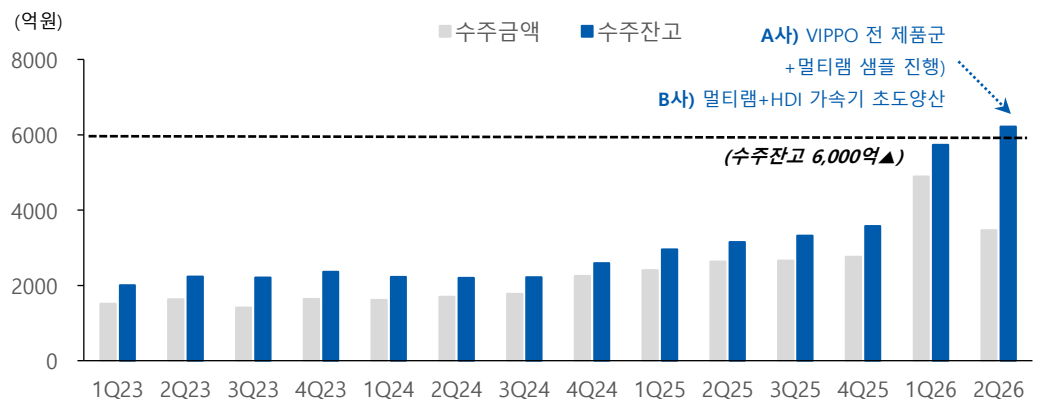
자료: 이수페타시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7] 이수페타시스 연결 기준 영업이익 및 O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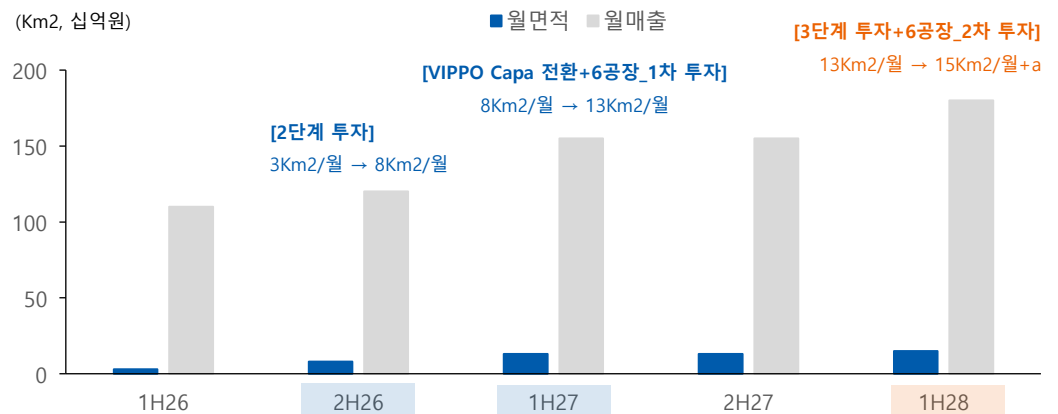
자료: 이수페타시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8] 이수페타시스 수주금액 및 수주잔고



자료: 이수페타시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9] 이수페타시스 다중적층 캐파 확장 Timeline - 면적 및 월 매출액 기준



자료: 이수페타시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6] 이수페타시스 목표주가 산정방식

구분	내용	비고
EPS(원)	5,535	'27년 예상 EPS
목표 PER(배)	32.4	'23년 12MF PER 고점의 10% 할증
목표 주가(원)	180,000	EPS*Target PER
현재 주가(원)	111,900	
상승 여력(%)	61%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7 증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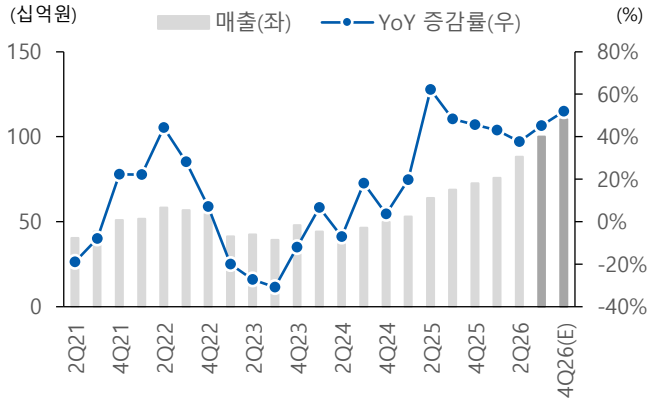
[표 7] 이수페타시스 분기 실적 추이 전망

(단위: 십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매출액	252.5	241.4	296.1	298.8	340.3	379.9	425.7	486.2	1,088.8	1,632.2	2,327.1
Y/Y 증감률(%)	26.5%	17.9%	43.5%	32.1%	34.8%	57.4%	43.8%	62.7%	30.1%	49.9%	42.6%
Q/Q 증감률(%)	11.7%	-4.4%	22.7%	0.9%	13.9%	11.6%	12.1%	14.2%	-	-	-
페타시스	209.6	209.7	258.3	252.1	276.3	308.2	356.2	411.4	929.7	1,352.1	2,004.6
중국후난	53.8	50.0	58.5	65.6	78.8	86.7	85.5	90.0	227.9	341.0	378.3
미국법인	5.4	5.3	5.9	6.3	6.5	7.5	7.9	8.1	22.9	29.9	36.3
영업이익	47.7	42.1	58.4	56.5	67.2	77.1	93.2	107.0	204.7	344.5	518.6
Y/Y 증감률(%)	107.4%	53.1%	125.5%	121.5%	40.9%	83.1%	59.6%	89.4%	100.9%	68.3%	50.5%
Q/Q 증감률(%)	87.0%	-11.7%	38.8%	-3.3%	19.0%	14.7%	20.9%	14.7%	-	-	-
페타시스	33.4	31.8	44.1	42.8	45.9	54.9	68.1	79.2	152.1	248.0	406.7
중국후난	11.3	7.0	10.5	11.0	17.1	16.9	20.5	22.5	39.8	77.0	88.9
미국법인	2.9	3.2	3.8	4.0	4.2	5.0	4.7	5.3	13.9	19.2	22.9
영업이익률(%)	18.9%	17.4%	19.7%	18.9%	19.7%	20.3%	21.9%	22.0%	18.8%	21.1%	22.3%
페타시스	15.9%	15.2%	17.1%	17.0%	16.6%	17.8%	19.1%	19.2%	16.4%	18.3%	20.3%
중국후난	21.0%	14.0%	17.9%	16.8%	21.7%	19.5%	24.0%	25.0%	17.5%	22.6%	23.5%
미국법인	53.7%	60.4%	64.4%	63.5%	64.6%	66.7%	59.2%	66.4%	60.7%	64.2%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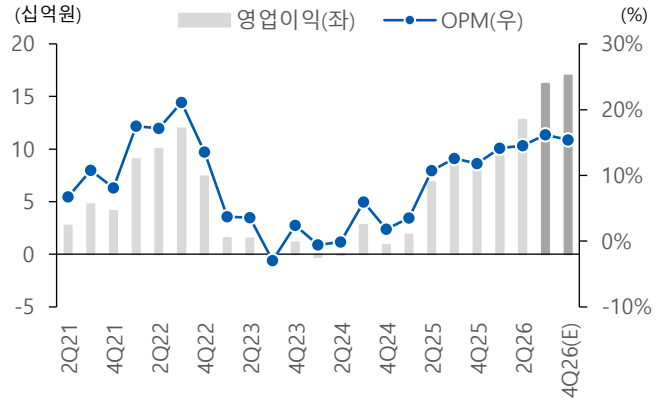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0] 티엘비 매출 및 YoY 증감률



자료: 티엘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1] 티엘비 영업이익 및 OPM



자료: 티엘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8] 티엘비 목표주가 산정방식

구분	내용	비고
EPS(원)	3,429	'28년 예상 EPS
목표 PER(배)	26.4	'25년도 PER 고점
목표 주가(원)	90,000	EPS*Target PER
현재 주가(원)	37,150	
상승 여력(%)	142%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7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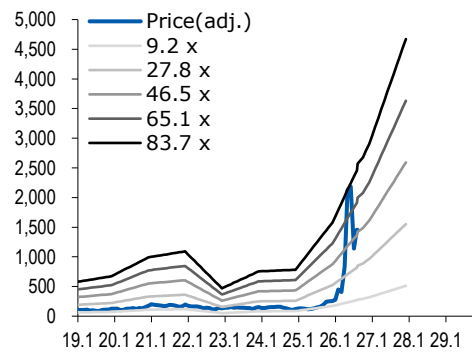
[표 9] 티엘비 분기 실적 추이 전망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매출액	53.0	64.1	68.9	72.6	75.8	88.2	100.0	110.3	258.5	374.3	504.6
Y/Y 증감률(%)	19.8%	62.2%	48.3%	45.7%	43.0%	37.7%	45.2%	52.0%	43.6%	44.8%	34.8%
Q/Q 증감률(%)	6.4%	20.9%	7.6%	5.3%	4.5%	16.4%	13.4%	10.3%			
DRAM	27.6	37.8	44.1	49.3	44.7	51.2	59.0	66.2	158.8	221.1	315.7
SSD	20.7	23.1	21.4	19.6	25.8	34.4	38.0	40.8	84.7	139.0	173.7
etc	4.8	3.2	3.4	3.6	5.3	2.6	3.0	3.3	15.0	14.3	15.1
영업이익	1.9	6.9	8.7	8.6	7.2	12.7	16.2	17.0	26.0	56.7	84.6
영업이익률(%)	3.5%	10.7%	12.6%	11.8%	14.1%	14.5%	16.2%	15.4%	10.0%	15.1%	16.8%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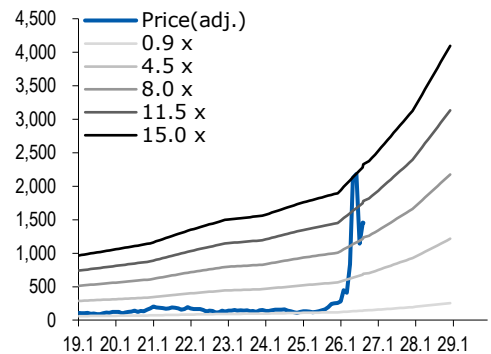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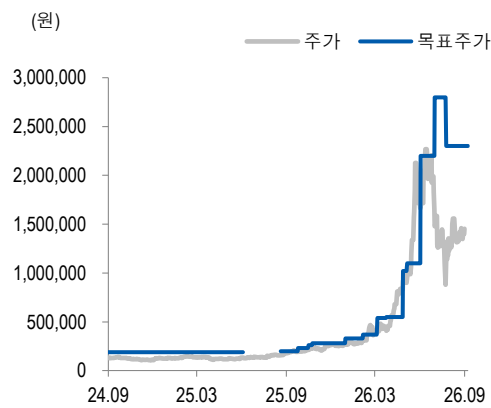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원)



삼성전기 (00915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9-08	BUY	2,300,000	1년		
2026-07-31	BUY	2,300,000	1년		
2026-07-08	BUY	2,800,000	1년	-53.89	-43.43
2026-06-09	BUY	2,200,000	1년	-9.40	3.18
2026-05-12	BUY	1,100,000	1년	32.72	93.36
2026-05-04	BUY	1,020,000	1년	-10.71	-10.10
2026-03-31	BUY	550,000	1년	15.98	52.55
2026-03-12	BUY	540,000	1년	-18.10	-11.20
2026-02-11	BUY	370,000	1년	7.84	26.08
2025-10-22	BUY	260,000	1년	-12.58	-10.77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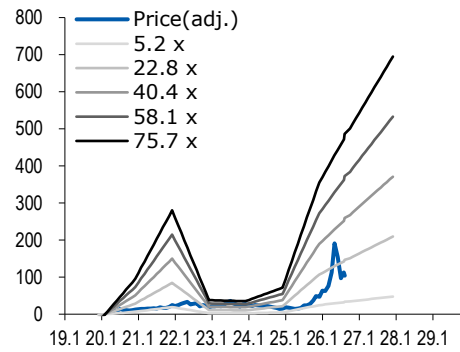
구분	투자 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6.7
Hold(중립)	3.3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6-09-07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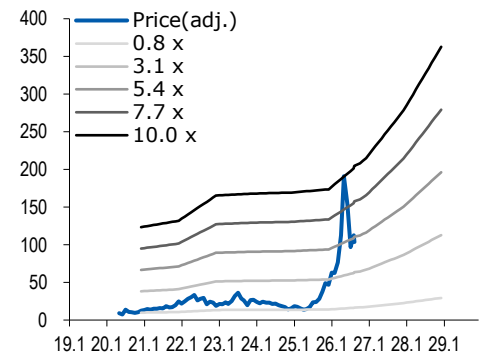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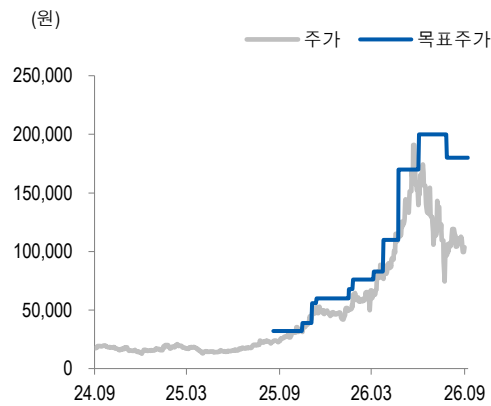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원)



대덕전자 (35320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9-08	BUY	180,000	1년		
2026-08-03	BUY	180,000	1년		
2026-06-09	BUY	200,000	1년	-34.53	-12.90
2026-04-30	BUY	170,000	1년	-14.55	12.29
2026-03-31	BUY	110,000	1년	-14.71	4.91
2026-03-12	BUY	83,000	1년	-6.27	6.75
2026-01-30	BUY	76,000	1년	-20.32	-12.24
2026-01-22	BUY	68,000	1년	-23.82	-19.85
2025-11-19	BUY	60,000	1년	-20.57	-11.83
2025-08-26	BUY	32,000	1년	-13.41	10.63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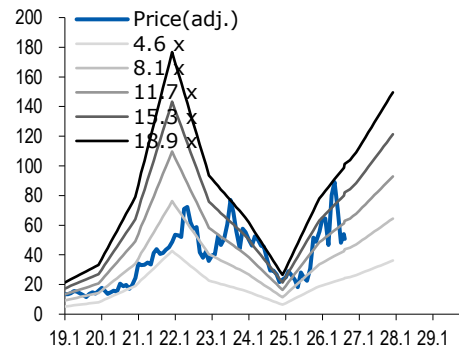
구분	투자여건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6.7
Hold(중립)	3.3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6-09-07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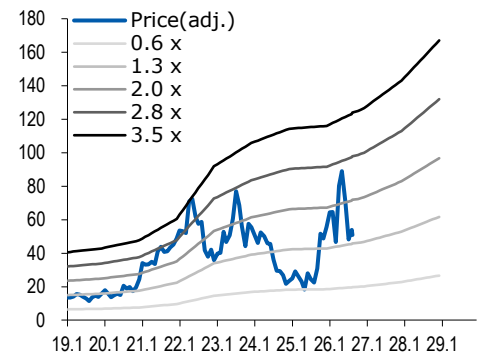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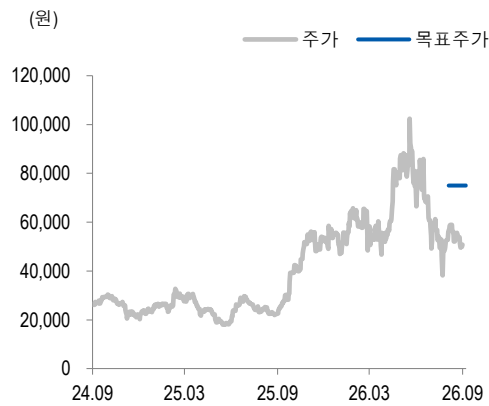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원)



해성디에스 (19587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9-08	BUY	75,000	1년	
2026-08-11	BUY	75,000	1년	
2025-12-24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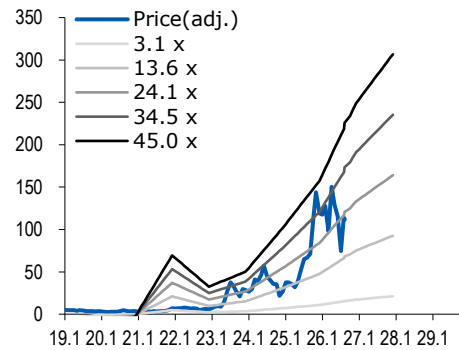
구분	투자여건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6.7
Hold(중립)	3.3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6-09-07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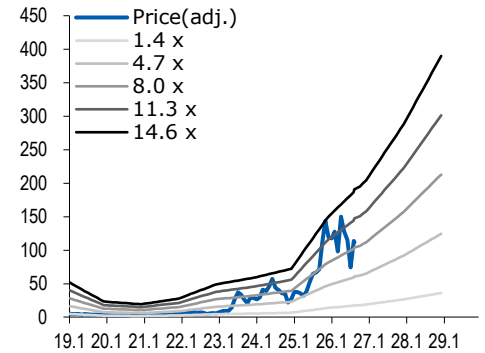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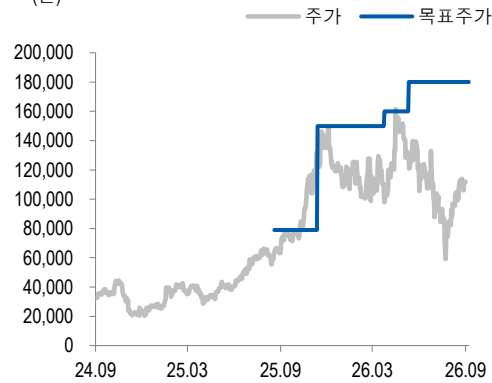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원)



이수페타시스 (0076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원)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9-08	BUY	180,000	1년		
2026-05-18	BUY	180,000	1년		
2026-03-31	BUY	160,000	1년	-17.90	0.88
2025-11-19	BUY	150,000	1년	-19.96	-1.20
2025-08-26	BUY	79,000	1년	9.32	66.46
담당자변경					
2024-11-29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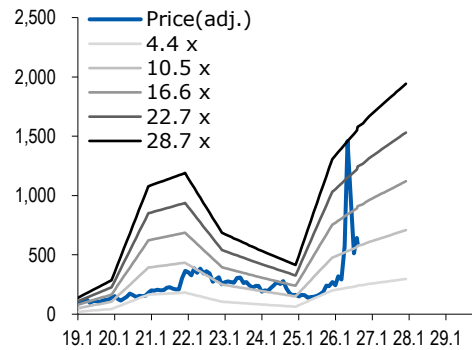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6.7
Hold(중립)	3.3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6-09-07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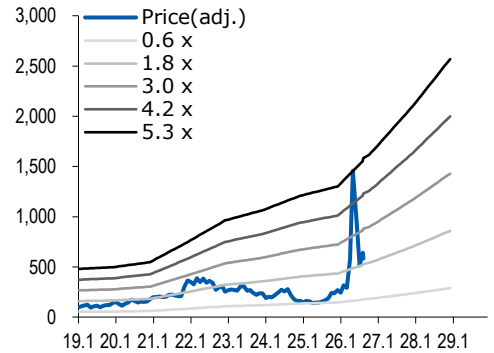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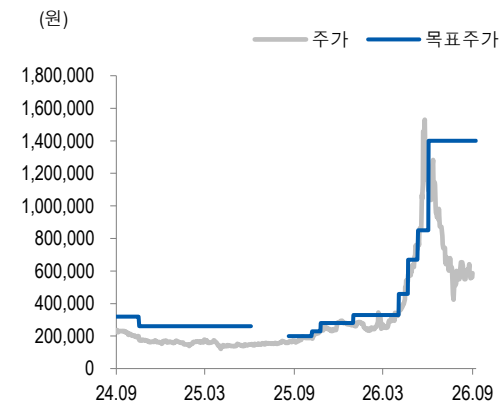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원)



LG 이노텍 (01107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9-08	BUY	1,400,000	1년		
2026-06-09	BUY	1,400,000	1년		
2026-05-18	BUY	850,000	1년	28.23	80.00
2026-04-28	BUY	670,000	1년	-1.19	13.43
2026-04-09	BUY	460,000	1년	-6.15	17.83
2026-01-06	BUY	330,000	1년	-16.11	5.15
2025-10-31	BUY	280,000	1년	-6.87	5.18
2025-10-13	BUY	230,000	1년	-6.98	0.43
2025-08-26	BUY	200,000	1년	-11.16	-1.25
2024-09-05	BUY	320,000	1년	-32.83	-25.78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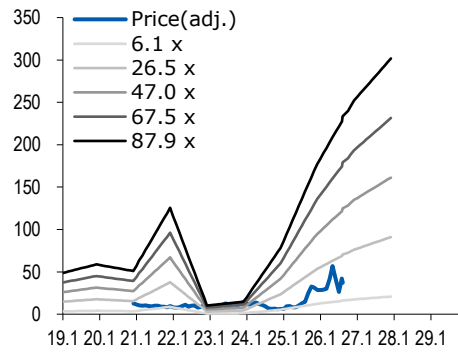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6.7
Hold(중립)	3.3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6-09-07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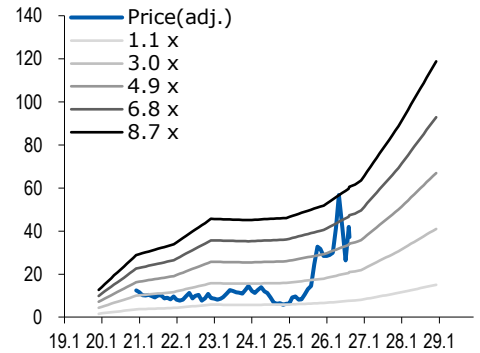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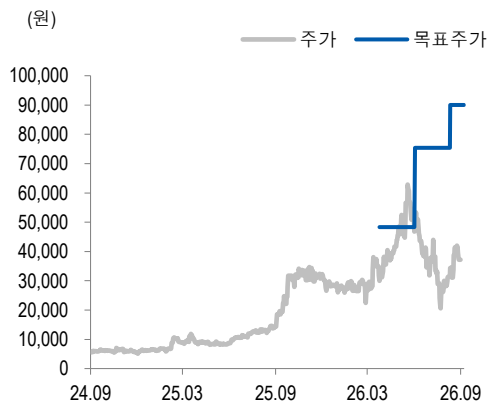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원)



티엘비 (3568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9-08	BUY	90,000	1년		
2026-08-18	BUY	90,000	1년		
2026-06-09	BUY	75,429	1년	-52.59	-29.27
2026-03-31	BUY	48,274	1년	-8.42	30.27
2025-12-24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여건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6.7
Hold(중립)	3.3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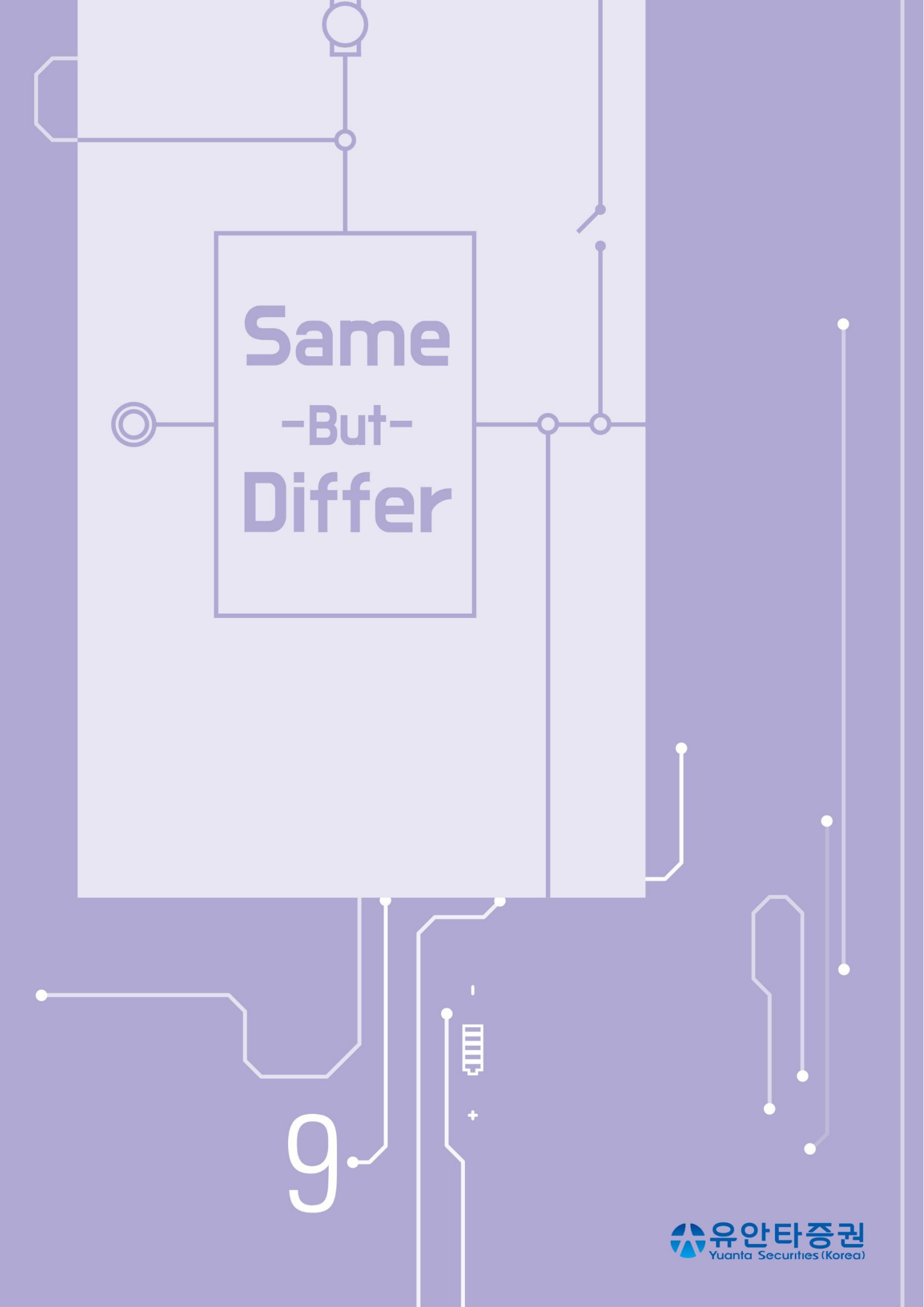
주: 기준일 2026-09-07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고선영**)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Same
-But-
Differ

9.